중소기업 설 쇠기 힘드네

광주·전남 10개사 중 6개사 자금난
휴무 짧고 상여금 지급 업체도 줄어

잔뜩 가라앉은 국내 경기가 설 명절을 앞둔 광주·전남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을 사흘 앞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10개 업체 가운데 6개 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여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강영태)가 225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 59.6%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해 지난해 추석(51.1%) 수준을 앞질렀다.

상여금 지급업체(72.7%) 중 지난해보다 '상여금을 확대지급'할 업체는 0.4%에 불과한 반면 '축소하겠다'는 업체는 13.8%에 달했다.

상여금 지급수준은 기본급의 '50% 이하'가 54.0%, '50~100%'가 42.4%로 집계돼 대부분이 기본급의 100% 이하를 지급할 예정이다.

업체당 평균 자금 소요액은 1억25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6천880만원을 확보하는데 그쳐 자금부족률은 32.9%였다.

이들 업체들은 ▲납품대금 조기회수(42.2%) ▲결제대금 지급연기(23.5%) ▲금융기관 차입(10.8%) 등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를 이용하거나(7.8%), 아예 대책이 없는 업체(6.9%)도 적지않았다. 또 금리인상이나 담보인정비율 축소 등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업체도 지난해 추석보다 0.8% 증가한 39.7%였다.

하남산업단지의 경우 상여금 지급 규모가 줄어든 반면 일감부족으로 휴무기간은 늘어나 최근 침체된 경기를 반영했다.

광주시 산업진흥과가 조사한 70여개 업체 가운데 상여금 50~100%를 지급하겠다는 업체는 지난해보다 3개 늘어났으나, 101~200%는 2개 감소했다.

휴무기간은 3일이 지난해 40개 업체에서 32개로 줄었고 4일 20개→25개, 5일 10개→13개로 늘었다.

하남산단내 A부품업체 근로자는 "지난해 100%였던 정기상여금이 올해 50%로 깎였다"면서 "상여금이 줄어든 반면 설날 물가는 치솟아 이래저래 우울한 설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기협중앙회 광주·전남지회 관계자는 "내수부진 장기화와 유동성 축소로 인한 금리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자금사정이 악화돼 기업들의 채산성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업체들의 사정이 근로자들의 설 휴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재래시장 살립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14일 개청 11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장순호 청장〈사진 오른쪽 맨 앞〉을 비롯한 직원들이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광주 양동시장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수용품 재래시장이 "저렴"

4인 가족 기준 구입땐 백화점 보다 10만원 싸

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설 제수용품을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경우 백화점보다 10여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국주부교실 광주시지부(회장 박영희)가 지난 12일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20곳에서 제수용품 31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에서 제수용품을 장만할 경우 모두 31만5천원이 든 반면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에서는 각각 25만8천100원과 20만7천500원이 들었다.

개별 품목별로는 깐녹두, 대추, 도라지(수입산) 등 일부 채소류의 경우 재래 시장이 백화점 보다 6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밀가루, 식용유 등 공산품 가격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한편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많은 오른 품목은 단감으로 200g 1개 가격이 지난해 479원에서 올해는 1천 66원으로 122% 상승했으며 양파(62%), 배(30%), 곶감(21%), 밀가루(17%) 등 모두 12개 품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신청 하세요

중기청, 업체당 1,000만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www.innobiz.net)으로 '2007년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술혁신 소그룹은 기업의 기술연구 및 생산공정 부문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을 말한다. 이 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대상으로 올해 300업체를 선정, 각 업체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활동비 등 소그룹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24개 소그룹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면서 "역량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 소그룹에 적극 참여해야 기술연구와 생산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농협 동림동지점 개소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지난 13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에 '농협 동림동지점(지점장 김영남)'을 신설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동림동지점은 120평 규모의 사무실로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동림2지구 8천여 세대에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로써 농협광주지역본부는 동림동 지점을 포함해 광주시 관내에 130여개의 점포를 갖추게 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여수 GS칼텍스 HOU 공사 순조

〈중질유고도화〉

공정 77%…내년 2월 완공

GS칼텍스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HOU(중질유 고도화)시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 예정인 HOU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보다 약간 빠르게 진행돼 15일 현재 76.91%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HOU(Heavy Oil Upgrading·중질유 고도화)시설이 준공되면 저가의 고 유황 원유에서 고품질 및 고가의 제품인 휘발유와 경유 등을 생산하게 된다.

중질유 고도화 시설은 13만평 부지에 1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부지내에 감압증류시설과 윤활기유 생산시설, 저장용 탱크 37기, 154㎾ 수·변전 설비를 포함해 건물 18개동이 들어선다.

시설 공사에는 하루 평균 4천500명, 연인원 220만명이 투입되게 되며 공사기간 동안 인건비만 4천억원에 달한다.

상업가동이후에는 사원 200명과 협력사 사원 1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비롯해 매출액 및 순이익 증가로 지방세와 주민세 납부액이 증가한다.

이밖에 육상과 해상수송 등 부대산업과 여수산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여수지역 협력사의 참여를 통한 기술능력 및 경쟁력 제고, 지역 건설근로자들의 경제력 역시 높아진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5개월후면 시설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 2월이면 명실상부 세계 최대·최첨단 HOU시설이 완공될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1월 광주 경제활동인구 65만 1,000명

작년 1월보다 1만6,000명 늘어
전국 취업자수는 25만 8,000명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취업자 수가 25만명대로 떨어지면서 정부의 고용목표인 30만명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실업률은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게 치솟은 반면 고용률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연초 고용시장이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취업자 수는 2천272만9천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25만8천명(1.1%) 증가했다.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8월 31만8천명에서 9월 28만2천명으로 떨어진 뒤 ▲10월 27만8천명 ▲11월 26만7천명 ▲12월 29만명 ▲올해 1월 25만8천명 등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연간 30만개 정도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고용사정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광주의 지난달 경제활동인구는 65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과 전월에 비해 각각 2.5%(1만6천명), 0.8%(5천명)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지난달 경제활동인구가 92만3천명까지 떨어지면서 전년 동월과 전월에 비해 각각 0.3%(3천명), 0.2%(2천명) 감소했다. 전남은 또 지난달 실업자 수가 1만7천명까지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과 전월에 비해 각각 11%(2천명), 8.2%(1천명) 높아지는 등 고용사정이 되레 악화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